



『정물』 캔버스에 유채 1988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예술인천

2015년 제19호
Contents

발행·편집인 | 김재열
기획·주간 | 김학균
편집·취재 | 이관형/고 춘/방은정
오인영/민여홍/김수경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발행처 | (사)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22166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 78 (인천문화회관 2층)
전화 | 032) 873-5174, 872-7873
팩스 | 032) 872-5551
홈페이지 | www.artin.or.kr
이메일 | artincheon@nate.com

펴낸 곳 | 친원디자인프린텍
정가 | 8,000원

영혼을 맑게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은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사)인천예총에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창을여는 詩

해안선 | 윤부현 4

커버스토리

서양화가 황추 8

지상갤러리, STORY

황성 | 김기룡 10
사원-Istanbul | 김상순 11
가을 들녘 | 노희정 12
법구경구 | 박영동 13
참좋은 당신 | 박혁남 14
환희 | 송덕성 15
눈부신 날에 | 이관수 16
인천장수동 | 이삼영 17

발간사

문학산, 인천의 가치 | 김재열 18

기획조명

서양화가 황추 | 편집부 21

Today Click

2015 인천아트페어의 평가와 전망 | 안영길 27
제33회 전국 연극제 성료 | 최종욱 30

Today Issue

도호부 대제 & 문학산 고유제 대제 | 편집부 38

THE ART OF INCHEON



The ART of INCHEON

- 2015년 전국광역시, 제주자치도 사진 교류제
- 2015 인천포도페스티벌
- 반세기 역사 인천사진대전에 대하여..... | 김재업 46

특 집

- 인천 무용제의 오늘, 내일
- 중장년 예능 경연대회 | 박혜경 54

문 학

- 그리운 금강산 | 한상익 64
- 작약도 | 최경섭 65
- 여가 | 한하운 66
- 강도의 하늘 | 김차영 67
- 인천각 | 최성연 68
- 팔랑버들 | 조병하 70
- 월미도 | 최병구 72
- 동향 | 최승렬 74
- 바닷가에서 올린 기도 | 진우춘 75
- 부두 (7) | 손설향 76
- 해변 | 조한길 78

인물 FOCUS 79

Review 86

편집후기 98

COVER-STORY

· 서양화가 황 추 ·



서양화가 **황 추**



부두의 황혼 (인천일보사 소장)

- 1924 황해도 해주생
- 1943 해주 제2고등보통학교 졸업
- 1947 해주 미술학교 수학
- 1953 인천 송도고등학교 미술교사 부임
(이후 24년 재직)
- 1958 국전 입선
(이후 연15회 입선, 1958 ~ 1975)
- 1963 개인전
(이후 개인전11회)
- 1965 미협 경기도지부장
경기도 문화상 수상
경기 미술전 심사위원
- 1966-67 국전 연2회 특선
국전 추천작가
- 1975 한국 미협전 이사장상 수상
- 1976 미국무성 초청으로 도미
- 1977 시카고시장 초대 개인전
- 1979 시카고 다이내스티 갤러리 초대전
미국 중서부 한인 미술인회 회장
- 1985 여의도 미술관 초대 개인전
- 1988 인천몽마르트 화랑 귀국전
- 1994 위암으로 미국에서 작고

인천미술의 서양화에서 주목할 화가는 국전에서 저력을 유감없이 보인 황추 화백을 꼽지 않을 수 없다.

1953년 인천으로 이주한 황추 화백은 송도고등학교에 재직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 인천미술에 기여도가 남다르게 크다. 한국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화백은 1965년 경기미협지부장을 역임하며 문화상을 수상한 작가로 미국으로 이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4년 미국에서 타계, 인천을 빛낸 인물이다.

- 편집자 주 -



2015 인천포토편스티벌

글·인천사진작가협회장 김재업

2015 인천포토편스티벌을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번 2015 인천포토편스티벌의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이번 사진전시회는 그동안의 진행했던 사진전시회와는 규모나 작품의 내용이 다르며, 특히 인천의 소재나 인천사진인들만의 작품전시회가 아닌 다양한 사진작품의 소재는 물론 전국광역시 및 제주자치도의 유명작가의 작품도 전시되었으며, 멀리 중국, 친진 사진작가들의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사진 또한 선보이는 국제적 사진교류전시회도 함께 진행하면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국광역시 및 제주자치도의 유명작가들의 작품 및 국제사진교류전의 중국 친진 작가분들의 사진전시회를 하면서, 이지역 인천의 사진작가는 물론 사진을 열심히 배우는 동아리회원과 평생학습관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분 그리고 개인적인 사진활동가 등 인천의 사진인 모두가 함께하는 인천광역시 연



합사진전시회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인천의 사진인들은 자기의 작품을 선보이고 또한 다른 지역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 지역의 다양한 소재는 물론 뛰어난 작품들을 감상하였고 국제사진교류전을 통해서도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2015포토편제스티벌은 출품수가 약 600여점으로써 인천종합예술회관 전관에서 전시되었으며 전시장 오픈식에 수백명이 참여하여 사진을 감상하고 즐기는 우리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린 뜻 깊은 사진전시회였습니다.

2015 포토편제스티벌은 3개의 전시회로 구성했습니다.

첫번째 전국광역시 및 제주자치도 사진전시회는 문화예술활동의 극심한 서울편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방의 균형있는 문화발전은 물론 사진예술의 공유를 위해 지자체별로 돌아가며 열리고 있는 행사로서 전국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와 지역예술의 특색화 그리고 범국가적 예술의 양질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4년이 되었습니다.

2015 인천포토편제스티벌에서 개최한 사진장르로는 자연과 인간의 삶으로 정하였으며 사진예술의 오늘을 조명하고 그 특색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인천시민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한·중 국제사진교류전은 1993년 인천직할시지부 당시 조건수지부장께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24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양국의 국민들은 서로가 전통과 문화를 잘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생활풍습과 제도가 다른 양국의 작가들이 모여 사진을 통하여 한·중 양국의 동방문화라는 공통점과 사진예술이 서로의 사이를 가깝게 함은 물론이고 한·중 양국의 민간예술교류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양국의 이해증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양국의 작가들은 서로 조금은 다른 심미취향, 예술적 시각 및 예술표현기법으로 양국의 자연



풍경과 인문경관을 진실하고 생동감 있게 반영하였으며 시민생활 사회풍속 등을 생생하게 표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감하는 사진예술의 교류가 되었고 한.중 국제사진교류는 오랜 기간 동안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영원성과 무한성 그리고 아름다운 감정을 예술로써 표현할 때 만이 비로서 예술은 발굴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인천광역시 연합사진전입니다

연합사진전은 1987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당시 인천의 사진작가는 물론 40여개의 사진동아리 회원 및 개인사진가등이 함께 연합으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사진전은 인천시민 사진예술 모니터의 중추적인 역할로 인천사진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폭넓은 사진인구 저변확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사협과 동아리 그리고 개인사진가 모두가 서로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사진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매우 유익할 뿐 아니라 같은 사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진예술에 대한 장은 물론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진은 인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예술의 정체성은 인간의 삶속에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진과 같은 구체적인 작품의 가치를 떠나서 예술생활 자체로 느껴지는 순간이야 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술적인 삶으로서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진예술의 또 다른 포토페스티벌이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세기 역사 인천사진대전에 대하여.....

글·인천사진작가협회장 김재업

인천사진 문화발전의 바탕을 마련한 인천사진대전은 벌써 반세기를 넘긴 51번째의 전람회를 만들어 내며 인천의 향토 사진문화를 일구는 많은 사진가들을 배출한 요람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 인천사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천 사진인들의 사진문화발전을 위한 도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50여년 전 인천의 행정구역이 경기도였을 때부터 경기 미술대전 사진부로 출발하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창작의 의욕을 불태우며 열악한 주변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예술로서의 사진을 위한 열정으로 사진문화를 개척하고 일구어 내는 작품발표의 산실이 되었으며 경기도 내의 많은 사진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마당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1982년도부터는 인천시 미술대전 사진 분과로 참여 하다가 1990년도부터는 인천시 사진대전으로 분리 독립되어 사진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여 참신한 사진가를 육성하고 현재까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술 대전부터 시작된 초대·추천작가 제도에 따라 많은 작가들이 등용되었으며 이 대전에서 초대작가에 자격을 획득한 작가들에게 한국사협에서 전국 심사위원 자격을 주는 규정으로 전국에 많은 공모전에서 인천의 작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권위를 높여주는 도약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대전을 통하여 30여명의 심사자격자가 탄생되었고 많은 사진가들이 전국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저변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부족과 행정적인 후원의 미비, 그리고 운영상의 시행착오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사진대전의 권위와 발전을 위한 인천 사진인들의 많은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이루어 놓은 작품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이 대전을 통하여 배출된 작가들의 발표의 장을 만들어 수준 높은 사진문화를 지역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발표의 기회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사진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성숙한 예술적 가치를 형성해가는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며 세대의 변화와 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가는 표현 방법의 형상화는 흑백에서 칼라로 표현의 영역을 넓혔고 근래에 와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전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분야로의 확장을 겪으면서 전반적인 표현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가공의 공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로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사진문화는 본 대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천사진 문화에 스며들어 새로운 형상상의 창조를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사진문화의 새로운 창조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는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실험적 시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따라서 창작의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상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사진인과 더불어 인천시민의 수준 높은 예술적 접근을 위한 다가가는 풍토의 조성은 앞으로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사진대전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사진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독특한 인천의 사진, 인천의 예술을 일구어 후대에 연결하고 한국사진 문화를 선도하는 앞날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대전을 만들고 이끌어 오신 이 땅의 사진문화를 사랑하셨던 선각자들과 그 뒤를 이어 사진문화를 일구는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맑고 밝은 의지는 영원히 이어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사진인들의 꿈과 희망이 알알이 영그는 알찬 수확을 위하여 앞으로도 한 땀 한 땀 역어갈 미래를 위하여 다 같이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인천사진대전의 영원한 도약의 마당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기를...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자



오영애 1947년생 _ 미술 부문

- 인천의 중진여류화가로 인천의 미술을 증진 지역성의 미술모달을 찾고자 한국화모임 일수회 창립
- 중등미술교사회 창립 및 여성미술인들의 작가정신과 여성미술세계를 재정립하고자 인천여성작가전을 창립
- 인천과 중국간 국제교류전회 원소회 가입 인천미술의 국제화를 위한 전초적 역할 수행
- 대한민국 미술대전 한국화 심사위원장(2012) 역임으로 인천의 위상 제고에 기여
- 개인전 12회, 부스전 16회, 상명전 46회, 여성작가회 31회, 인천미술 초대작가전 등 121회, 인천예술인상(2001)



최용백 1964년생 _ 미술 부문

- 인간에 의해 변화된 환경과 지역의 변모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자신의 분야에서 역사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다큐멘터리 사진가
- 개인전 39회(인천 35), 출판 35종(인천 25), 논저연재 23종(인천 11), 단체 기획전 47회(인천 18), 영구전시 및 소장전 37회(인천 842점), 전시기획 21회 등
- 순회전시 : 인천하천 하천은 살아있다 등 55번(인천 51)
- 강원문화상(2010), 가천문화상(2012, 2014)



박혜경 1966년생 _ 공연예술 부문

- 인천현대무용단 창단으로 인천 현대무용에 이바지
- 전국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 인천광역시 현대무용의 우수성 및 발전상 전파
- 제9대 및 10대 인천시 무용협회장으로 인천의 문화예술 제고 및 인천무용제를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킴
- 문화향유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무용문화시연 펼쳐 인천무용의 우수성 전파
- 전국무용제 은상(2002), 인천시장 표창장(2003, 2007), 인천예총 예술상(2004), 연수구 문화상(2009)



사)인천예총 신진예술가상 수상자



강천일(姜天一) 1987년생 _ 무용

2014년 인천무용협회에 입회하여 협회가 주최하는 인천국제현대무용제에서 안무작을 출품하고 이루다 댄스프로젝트 Black Toe에 출연하는 등 인천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인천출신의 신진안무가로서 향후 무용예술발전을 위한 기대주로 조명되고 있음.



사)인천예총 예술상 수상자



장영진(張永振) 1945년생 _ 사진 부문

인천사진작가협회 부회장이어서 2000년 협회에 입회한 이래 <마음에 풍경을 담다>, 광복70주년 기념 <무궁화사진전>을 비롯하여 개인전, 그룹전, 초대전, 국제전 등 90여회의 작품전을 통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사진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사진교육활동 및 후진양성에 힘쓰며 지역사진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인개척 정신이 타 예술인의 귀감이 됨.

- 현 인천사진작가협회 부회장
- 인천교원사진연구회 지도위원
- 한국사진작가협회 풍경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사진작가협회 디지털분과 감사
- 인천남동예술인회 사진분과장



김기룡(金起龍) 1957년생 _ 미술 부문

1989년 인천미술협회에 입회하여 15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및 그룹전 개최를 하였으며, 인천미협 수요사생회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수요사생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 현재 인천미술협회 부회장으로 미협 행사 등 자신의 직분을 다하여 인천지역미술 발전에 이바지함.

- 현 인천미술협회 부회장
- 인천미술대전 초대작가
- 인천미술협회 수요사생회 초대운영위원장
- 경인미술대전 초대작가
- 현대미술 신기회 인천지회장



송옥숙(宋玉淑) 1960년생 _ 영화 부문

2007년 인천영화인협회에 입회하여 부회장직을 거쳐 현재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협회 창립 초기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발전과 상호간의 친목·회합에 탁월한 역할을 하였음. 특히 후배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송옥숙의 연기교실 '딴 학교' 사업으로 많은 후학을 길러봄과 동시에 협회의 모든 행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됨.

- 현 인천영화인협회 회장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한국청소년문화재단 홍보위원



박기화(朴晝和) 1967년생 _ 음악 부문

2000년 인천음악협회에 입회하여 인천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인천 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광심포니(시각장애)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인천 교향악 발전과 공연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됨. 후학양성에 이바지하여 신인음악가들을 발굴하는 등 인천지역의 교향악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인천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함.

- 현 인천 뉴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 인천 해광심포니(시각장애)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 인천예술고등학교 음악부장
-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손삼화(孫三和) 1968년생 _ 국악 부문

2008년 인천국악협회에 입회하여 지금까지 전통음악에 뜻을 두고 한국무용을 전공하여 전통음악과 인천예술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으며 인천시민 문화예술 향유 및 경로효친의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 등 숭선수범 하는 자세로 타 예술인의 모범이 됨.

- 현 인천국악협회 무용분과위원장
- 인천 향토춤사위 연구회 이사
- 인천국악회관 한국무용반 감사
- 부평아트센터 한국무용반 감사
- 2004 인천광역시 표창장 수상
- 2007 인천예총 예술상 공로상 수상



사)인천예총 공로상 수상자



함용정(咸溶正) 1954년생 _ 문학

1997년 인천문인협회에 입회하여 현재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수필과 비평작가회의 이사, 갯벌문학회 부회장, 서해아동 문학회 이사, 인천광역시공무원문학회, 푸른시문학회원으로 향토문학을 사랑하고 인천문학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함.



신석휴(申釋休) 1971년생 _ 미추홀

미추홀 문화회관 강사로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기타와 우쿠렐레 교실을 맡아 수준높은 강의로 성황리에 강좌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타뿐만 아니라 쟀베, 색소폰 등의 악기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함.



박지훈(朴志訓) 1979년생 _ 무용

인천무용협회 무대감독으로 2013년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용협회 개최의 각종 행사에 기술스텝으로 참여하였으며, 2014년 전국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용예술교류제, 인천시 개최 전국무용제 등에서 협회의 파트너이자 조력자로서 무용예술의 무대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함.



조미승(趙桴宋) 1960년생 _ 연예

2000년 인천연예예술인협회에 입회하여 가수분과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영이사로 활동하며 특히 소외된 지역(교도소, 낙도)과 불우 청소년, 도서지방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문화전도사로서 인천지역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유에 큰 공로가 인정됨.



기태인(奇太印) 1973년생 _ 연극

인천연극협회 회원이자 극단 '나무'의 대표로서 20여년간 꾸준한 연극 활동을 해오며 춘천의 인형극제를 비롯해 부산, 김천 등 각종 연극제 수상은 물론 후진양성교육에도 많은 기여를 하는 등 인천연극협회의 회원단체로 그 위상을 높인 바가 큼.



인천광역시 시장상 수상자



김종원(金種遠) 1941년생 _ 연극

1972년 인천연극협회에 입회하여 인천시 소극장 운동의 주역으로 1981년 극단 미추홀 전용소극장을 개관하여 연극발전에 힘썼고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맥을 지키고 있음. 제8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시립극단 창단, 16년 동안 인천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후배 연기자들의 귀감이 됨.



조선일(趙善日) 1954년생 _ 사진

1998년 인천사진작가협회 입회 이래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작분과 감사, 국제교류분과 위원, 재무간사 6년, 현 사무국장으로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솜순수범 하였고 사진인 저변확대와 후배양성 등의 큰 공로가 인정됨.



고데레사(高데레사) 1962년생 _ 연예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가요강사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타고난 예능의 재질을 사회에 연결 환원 시킴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장달에 공이 큼. 후진양성과 협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대중문화 예술공연에도 혼신을 다하여 건 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열정적인 사명감으로 많은 일을 하여 타의 귀감이 됨.



원신희(元信姬) 1969년생 _ 미추홀

미추홀 문화회관 강사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초문화예술 분야인 클라리넷 교실을 맡아 수준 높은 강의로 강좌운 영을 하고 있음. 미추홀문화회관 뽀뽀음악콘서트의 오케스트라 파트를 총괄 지휘하는 등 회원이 주관하는 문화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추홀 문화회관 및 인천예총의 발전에 기여함.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상 수상자



곽은순(郭銀淳) 1955년생 _ 영화

20년 동안 연기생활을 해온 인천영화인협회 회원으로서 협회 창립 다음해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에 탁월한 활동을 하였으며 협회의 모든 행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등 타 예술인의 모범이 됨.



명노선(明魯善) 1965년생 _ 미술

2011년 인천미술협회에 입회하여 서양화분과 이사직을 맡아오며 15년간 다수의 개인전 및 부스전을 열어 문화예술인들의 귀감이 되고 전국호국미술대전,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인천광역시 근로자예술제 등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며 인천지역미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함.



방은정(方恩晶) 1981년생 _ 문화회관

2011년 인천예총 입사 이래 사무처 및 문화회관 담당업무를 전력을 다하여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예총 산하 9개 회원협회와 인천시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조율 운영하며 문화예술 전반에 탁월한 기량을 발휘함. 또한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며 타의 귀감이 됨.



고경옥(高景玉) 1960년생 _ 문학

인천문인협회 시문과 회장이자 시인으로서 우수한 작품과 다작의 시 발표와 낭송회를 통해 인천문인협회의 위상을 높임에 앞장섰으며, 협회 행사는 물론 전국규모의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든든한 친화력으로 봉사하는 등 인천문화발전 및 문예진흥에 이바지함.



이유정(李瑜庭) 1969년생 _ 사진(행정)

2005년 인천사진작가협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제물포사진대전, 인천시사진대전, 임해사진촬영대회, 전국세미누드촬영대회, 전국학생촬영대회, 인천광역시관광사진공모전 등 협회의 각종 문화행사기획 시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업무추진 능력이 인천지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



사) 인천예총 예술상·공로상 역대 수상자

회수	년도	예술상		공로상	특별 공로상
		부문	성명		
1	1992	무용 문학 미술 음악	김경숙 이재인 이정중 김병일		
2	1993	국악 미술 연극 연예	정일향 이근우 박승인 이관길		
3	1994	무용 문학 미술 음악	이명신 정승열 용두환 정수동	김병일	
4	1995	국악 사진 연극 연예	김국진 김인성 이원석 박생규		
5	1996	무용 문학 미술 음악	신영자 장종권 이지훈 김한철		
6	1997	국악 사진 연극 연예	안선균 박상조 신용우 조광진	박봉하	
7	1998	무용 문학 미술 음악	김영미 김영승 최병국 윤해경		
8	1999	국악 사진 연극 연예	정용해 조건수 김성찬 김창환	이주열	
9	2000	무용 문학 미술 음악	조순분 박 일 박승진 신동환	김영숙	
10	2001	국악 사진 연극 연예	이영숙 박만국 홍건표 배성원	박등배	
11	2002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임경미 이재숙 오영애 김진성	조만년 이관형 최병국 최임순 노중선	
12	2003	국악 미술 사진 음악	정환상 엄규명 류재형 박장환	고경현 김가영 송정화 최공주	

회수	년도	예술상		공로상	특별 공로상
		부문	성명		
13	2004	무용 문학 연극 연예	박혜경 조영숙 송인혁 이주열	박형화 홍은주 최중욱 김진구	최영섭
14	2005	국악 미술 사진 음악	이순희 이영학 김대성 이종관	이해봉 임경배 신영자 이명균 김묘진 최종영 유류경 임의택 김준기	
15	2006	무용 문학 연극 연예	최경희 신미자 이문형 지미연	윤광덕 류상하 유춘광 김순희 이상미 김 옥 하승희	故이영유
16	2007	사진 국악 미술 음악	김동희 유은자 박영동 한창서	전 숙 김진초 김영주 봉원승 김경숙 손삼화 박영미 임영철 최현주	
17	2008	문인 연극 연예 무용	한미령 최완영 김수경 김희진	선종을 서세란 홍순덕 홍석진 마광휘 임기원 이혜주 장서정	
18	2009	사진 국악 음악 미술	김복섭 박복임 안성환 문선덕	황태현 길장숙 조외숙 이민순 손민목 배천분 최명우 이현정	
19	2010	문학 사진 연극 연예	문광영 최한철 박진영 김주성	이강희 이영숙 송옥숙 이창구 박중순 임정환 현혜미 민혜성	
20	2011	사진 미술 영화 국악 음악	조만년 임종각 송인혁 이영아 백종성	이필훈 이목연 이화영 장대식 이소진	신진 예술가상 이동현
21	2012	연예 문학 연극 무용	장세원 최제형 최중욱 이윤정	전운영 정귀영 장재기 박대규 박명숙 정원호 최은영	신진 예술가상 노승용
22	2013	사진 음악 미술 국악 영화	이종목 박문전 서주선 이지옥 박성균	구칠성 유인채 전옥분 고통희 강혜은 박석광 차민선	신진 예술가상 공민규
23	2014	문인 연예 연극	윤연옥 김종문 김세경	김기호 이어숙 오요섭 이연재 고종은 장혜지	신진 예술가상 김형기 임보람